

2020 국별 진출전략

칠레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3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
가. 2018-2022 국가 디지털화 계획 시행 및 도시 현대화 정책 추진	4
나.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시행으로 보건의료시장 확대 예정	5
다. 노동법 및 연금제도 개정 예정(잠정)	5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7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7
가. 정치 환경	7
나. 경제 환경	7
다. 산업 환경	9
라. 정책·규제 환경	10
2. 시장 분석	11
가. 시장 특성	11
나. 교역	12
다. 투자진출	15
라. 인프라 프로젝트	16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18
가. 교역	18
나. 투자	20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23
III. 진출전략	24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24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5
3. 한-칠레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0
4. 진출 시 유의사항	34
첨 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35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36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37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38
부 록	
對칠레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39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2020년 칠레 경제성장 전망

- 2020년 경제는 2019년 대비 **소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
 - 2019년 4분기 발생한 연이은 시위로 2019년 칠레의 경제성장률은 1.8~2.2%에 그칠 것으로 추정됨. 2020년에는 대내 불안정 요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칠레 정부는 2019년 기준금리를 10월에 1.75%로 인하하여 2020년 경제는 2019년보다 다소 호전될 것으로 기대
 - 칠레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구리 수출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고, 2019년의 경우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구리 수출량이 전년 대비 23.79%(1~7월 기준) 크게 감소하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2020년엔 위 요소들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구	백만 명	17.8	18.0	18.2	18.4	18.5	18.7	18.9
명목 GDP	십억 달러	260.479	243.908	250.265	277.668	298.172	295.614	313.561
1인당 명목GDP	달러	14,643	13,571	13,775	15,127	16,078	15,777	16,564
실질성장률	%	1.8	2.3	1.7	1.3	4.0	3.4	3.2
실업률	%	6.4	6.2	6.5	6.7	7.0	6.5	6.2
소비자물가상승률	%	4.7	4.4	3.8	2.2	2.3	2.3	3.0
재정수지(GDP대비)	%	-0.5	0.5	-0.9	-2.1	-1.5	-1.6	-1.4
총수출	백만 달러	75,065	62,035	60,718	68,859	75,452	70,900	71,400
(對韓 수출)	"	4,561	4,105	4,047	4,079	4,360	-	-
총수입	"	68,599	58,609	55,855	61,500	70,783	66,500	68,000
(對韓 수입)	"	2,164	1,881	1,625	1,782	1,685	-	-
무역수지	백만 달러	6,466	3,426	4,864	7,359	4,669	4,400	3,400
경상수지	"	-4,288	-5,647	-3,960	-5,965	-9,157	-9,600	-9,200
환율(연평균)	현지국/달러	570.01	654.25	676.83	649.33	641.22	692	699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1,274	1,489	680	618	303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2,367	2,001	1,194	686	716	-	-

주 : 2019년은 추정치, 2020년은 전망치.

자료 : 칠레 중앙은행, IMF, 칠레통계청(INE), EMIS, 칠레 국세청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 2020년은 칠레 경제반등 및 경기 활성화 예상
- ※ 국가 디지털화 추진, 보건의료시장 확대, 노동법 및 연금제도 개정 예상

가. 2018-2022 국가 디지털화 계획 시행 및 도시 현대화 정책 추진

칠레 정부, 2018-2022 국가 디지털화 계획 시행 중

- 칠레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 정부 부처를 신설하여 2022년까지 국가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음.
- 국가 디지털화 계획은 디지털 정부 부처 홈페이지(digital.gob.cl)에 모두 공개되고 있으며, 세부 추진계획은 6개의 주제로 나뉘며 아래와 같음
 - 디지털 신분 시스템 구축 : (1) 주민등록번호(RUT)을 통해 정부 사이트뿐만 아니라 사설 사이트에서도 본인 확인 서비스를 개시 (2) 안전한 보안 방침 구축을 통한 정보 관리 (3) 민원 진행 사항 및 알림 수신함 도입 (4) 전자서명 시스템 구축
 - 대기 줄 없는 국가 만들기 : 불필요한 행정절차 삭제 및 행정 간소화를 추진하며, 행정절차 디지털화를 통한 시간절약이 목적으로 2022년까지 행정절차의 80%를 온라인화가 목표
 - 종이 없는 국가 만들기 : (1) 2020년까지 전자서명 시스템 및 관련 플랫폼 도입을 통한 정부 부처 간 공문 시스템 구축 (2) 전자파일 시스템 사용 권장을 통해 2022년까지 기관들의 50%가 전자파일을 사용 (3) 행정절차 통합을 통한 종이 절약
 - 데이터 기반의 국가 만들기 : (1) 국가 데이터 및 인공지능(AI) 정책 수립 (2) 데이터 및 파일럿 실험 등을 통한 공공 정책 수립 추진 (3) 인공지능(AI)과 같은 신흥 기술을 통한 공공정책 최적화 및 행정 자동화 (4) 공공 정보 공개 보편화
 - 사이버보안 체계 구축 : 국가 디지털화로 인해 발생하는 보안상 위험요인 제거 및 관련 정책 및 기관 수립 등
 - 미래 지향적인 국가 만들기 :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식 형성 등
- 특히, 2019년 1월 24일에 피네라 대통령이 국가 디지털화 지시서(Instructivo Presidencial de Transformación Digital)에 서명하면서 디지털 신분 시스템 구축, 대기 줄 없는 국가 만들기, 종이 없는 국가 만들기 및 조정·모니터링의 네 가지 사항을 강조하면서 위 항목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

도시 현대화를 위한 다각도 정책 추진 예정

- 도시 간의 융합과 국민 생활의 향상을 위해 ‘주택 국가 재산부(Ministerios de Vivienda y de Bienes Nacionales)’ 산하 ‘도시 주택 영토부(Ministerio de Ciudad, Vivienda y Territorio)’를 신설하고, 주택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
- 도시 내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산티아고 지하철의 2, 3, 4호선을 확장하고 지하철 7, 8, 9, 10호선 및 산티아고-공항 전철을 신규로 건설할 예정
- 산티아고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발파라이소(Valparaiso)와 같은 주변 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기차를 건설할 예정
- 칠레 전역에 7개의 공원 또한 신규로 설립할 예정
- 이 외에도, 고속도로, 공항, 항구 등에 대한 도시 인프라 건설 사업이 예정되어 있음.

나.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시행으로 보건의료시장 확대 예정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수요 증가 전망

- 칠레는 2025년까지 고령인구 비율이 약 14.3%까지 상승할 전망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증가, 공공보건 투자 증가, 의료부문 민관협력 증가, 공공 및 민간 의료보험 서비스 범위 증가 등으로 인해 칠레의 의료기기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관련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실버산업의 성장이 기대됨

피네라 대통령의 2018-2022 정부 계획에 보건의료 확대 내용 다수 포함

- 현 정권의 운영계획 내 병원시설 현대화, 의료 접근성 강화, 약가 하락 등 보건의료 접근성 강화에 대한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2022년까지 보건의료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펼 것으로 전망됨.

다. 노동법 및 연금제도 개정 예정(잠정)

2019년 대통령 연설을 통해 노동법 및 연금제도 개정 방향 언급

- 직장인들에게 자유와 유동성을 부여하기 위해 원거리 업무 제도를 도입하고, 한 달 기준 법정 근로 시간을 195시간에서 180시간으로 줄일 예정
-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노동법을 강화할 예정

- 단체 교섭, 협상 단체 및 노동부의 역할을 규제하는 법안 수립 예정
- 고용연금(Pilar Contributivo)의 4% 인상을 위한 법안 수립 예정
- 퇴직연금과 고용연금의 강화를 통해서 퇴직자들과 노년층의 연금 인상예정

2019년 10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회개혁 아젠다 발표

- 칠레 피네라 대통령은 2019년 4분기 칠레 내 연이은 격렬 시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22일 저녁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회개혁 아젠다’ (Agenda Social)를 발표함.
- 기본 연대연금(Pensión Básica Solidaria, PBS) 및 보조 연대연금(Aporte Previsional Solidario, APS)의 20% 인상을 즉각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발표
- 건강보험 확대 및 개선 발표
- 현 최저임금을 35만 페소로 인상할 것으로 발표
- 이 외에도 소득세 시스템에서 월 800만 페소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40%를 징수하는 새 소득세 구간설정, 시 공동기금 강화, 국회의원 및 공무원 급여 삭감 등 여러 방면에 대한 정책을 발표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 2018년 신정부 출범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있었으나, 2019년 4분기 연이은 시위로 인한 경기 둔화 예상
- ※ 저금리 기조 유지 예상

가. 정치 환경

2018~2022년 친기업 신정부 집권으로 임기 내 경기 활성화 정책 수행 전망

- 피네라 대통령은 당선당시 핵심 대선공약으로 ‘칠레의 선진국 대열 합류’를 강조하였으며, 그 방안으로 ① 조세개혁, ② 교역 활성화, ③ 인프라 구축 및 광업 다각화, ④ 사회복지정책 개편 및 확대를 제시함. 이로 인해 정권 내 경기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형성됨

2019년 4분기 연이은 시위 및 국가 비상사태 발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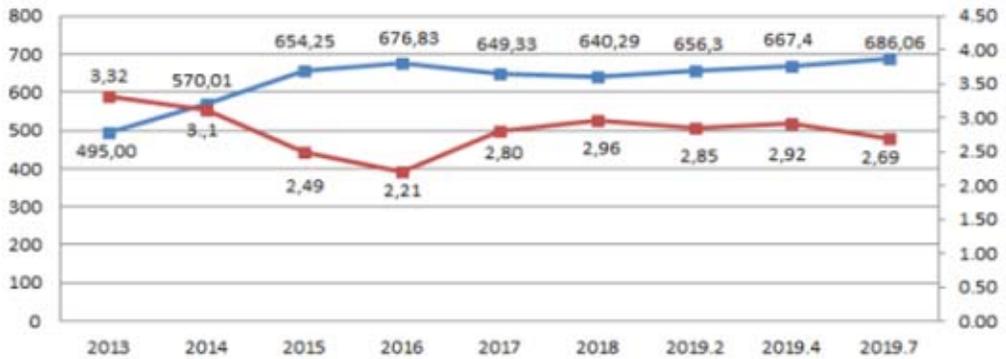
- 산티아고 지하철 요금인상을 계기로 2019년 10월 7일에 시작된 시위가 18일 과격 시위로 번지면서 산티아고를 포함한 칠레 다수의 지역에 비상사태(군 통제권 부여, 통행금지 발령가능) 선포
- 연이은 시위로 2019년 개최 예정이었던 APEC, COP25 회의가 취소되는 등 시위로 인한 정치·경제·사회적 여파가 지속될 전망
 - 회담 취소가 발표된 이후 칠레 증시 2.8% 급락(4,880.87 → 4,744.13)
- 또한, 이로 인해 현지 세관, 통관 및 운송 등이 지연되고 있으며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중장기적인 악영향 예상

나. 경제 환경

칠레 환율과 구리 가격은 반비례 관계 유지

- 칠레는 구리를 포함한 원자재 중심의 수출구조로 인해 국제 원자재의 수요 및 가격, 기준금리 등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 전통적으로 구리 가격과 환율은 반비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칠레 환율 및 구리 가격 동향



자료 : 칠레중앙은행, 칠레구리공사, 2019년 7월 기준

경기활성화를 위한 저금리 유지 추세

- 칠레 정부는 2016년까지 3.5%였던 금리를 2017년 12월 2.5%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저금리 정책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2019년 9월에 금리를 2%로 인하했고, 2019년 10월에 0.25% 추가 인하로 1.75% 금리를 유지 중

물가상승률 둔화

- 칠레의 2019년 상반기 칠레의 물가 상승률은 중앙은행 목표치인 3%의 절반에 해당하는 1.6%로 집계되었으며, 12개월 누적치는 2.3%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으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 지속적인 폐소가치의 하락과 이민으로 인한 노동력 공급의 증가가 낮은 물가상승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실업률은 고질적인 국가 문제로 꼽히고 있음

- 칠레는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에 힘입어 중남미에서 에콰도르, 페루에 이어 세 번째로 실업률이 감소한 국가이나 여전히 6%~7%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나, 단, 비공식적인 고용 증가와 지속적인 이민의 증가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실업률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

다. 산업 환경

칠레 산업구조

칠레 국내총생산(GDP) 구성

(단위 : 백만 페소, %)

연번	분야	2017년			2018년		
		금액	비중	증감	금액	비중	증감
국내총생산 총계		180,211			191,249		
1	농림축산업	5,827	3	99	5,929	3	102
2	수산업	1,155	1	131	1,037	1	90
3	광업	17,419	10	128	18,813	10	108
3.1	(구리)	15,765	9	131	17,048	9	108
3.2	(기타 광물)	1,654	1	100	1,764	1	107
4	제조업	18,895	10	102	20,362	11	108
4.1	(식품)	6,020	3	111	6,489	3	108
4.2	(담배, 음료)	2,375	1	96	2,605	1	110
4.3	(직물, 의류, 피혁)	360	0	97	306	0	85
4.4	(목재, 가구)	1,112	1	96	1,118	1	101
4.5	(펄프, 제지, 인쇄)	1,705	1	109	2,366	1	139
4.6	(정유)	1,529	1	93	1,484	1	97
4.7	(화학고무, 플라스틱)	2,152	1	97	2,154	1	100
4.8	(비철 및 기초금속)	780	0	91	796	0	102
4.9	(기계, 장비)	2,861	2	100	3,043	2	106
5	전기, 가스, 수도	5,354	3	103	5,623	3	105
6	건설업	11,682	6	101	12,509	7	107
7	도소매업	16,846	9	104	17,685	9	105
8	호텔, 요식업	3,953	2	111	4,274	2	108
9	운송업	8,885	5	99	9,188	5	103
10	정보통신업	4,816	3	103	4,584	2	95
11	금융서비스업	8,353	5	106	9,098	5	109
12	기업서비스업	17,610	10	102	18,851	10	107
13	주거서비스업	14,141	8	110	15,180	8	107
14	개인서비스업	21,029	12	107	22,971	12	109
15	공공행정	8,687	5	106	8,874	5	102
16	국내총생산 소계	164,653	91	106	174,978	91	106
17	부가가치세	14,739	8	107	15,441	8	105
18	관세	820	0	118	830	0	101

자료 : 칠레 중앙은행(경상가격 기준) 자료 재구성 (2019년10월)

- 칠레 산업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광업이며, 2018년 기준 광업이 칠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이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수준이나, 광산업을 위한 금융,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도소매업도 발달해 있어 실제로 광업이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큼

라. 정책·규제 환경

환경을 중요시하는 문화로 환경규제 많음

- 칠레 환경부(MMA)와 수도권 지역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Santiago Respira(산티아고는 숨쉰다) 프로젝트’는 교통, 산업, 주거 전반을 아우르는 민관협 대기오염 억제 프로젝트로 2018년에 시행
 - 대표적으로 교통 분야에서 2012년 이전 촉매 컨버터 탑재차량 동절기 운행 제한, 산업 분야에서는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대폭 강화, 주거 분야에서는 취사 및 난방용 화목(火木) 사용 전면 금지 등을 시행
- 이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 비율 등 환경과 관련된 정책이 많은 편

칠레 프로젝트 시장 진출 시 환경영향평가제도 유의 필요

- 칠레 정부는 1997년 수립된 법률 19,300호와 2010년 개정된 법률 20,417호를 통해 신규 또는 변경 건설 및 설비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영향 평가제도(SEIA)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칠레 정부는 인프라 건설로 인한 지역사회, 자연 및 문화의 훼손을 예방하고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
- 환경영향평가 대상 분야는 광업, 제조업, 임업, 댐 건설, 배전망, 3MW 이상의 발전소, 터미널, 철도, 도로, 항만, 공항, 관광시설 등 21개 분야로 나뉘며
 -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득한 프로젝트도 변형 또는 추가 건설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항에 대해 다시 환경영향평가 필요
- 칠레 환경영향평가는 더딘 심의와 강력한 시민참여 등의 이유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편이며, 이로 인해 대형 프로젝트들이 1년에서 길게는 2년까지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 중

2 시장 분석

- ※ 칠레는 경제영토 세계 1위로 시장 개방성이 장점
- ※ 국민소득, 국가신용도, 국가경쟁력 기준 중남미 최상위권
- ※ 역대 가장 안정된 경제여건 보유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중남미 우량국가) 1인당 국민소득, 국가신용도, 국가경쟁력 중남미 최상위권

- 칠레는 남미 국가 최초 OECD 가입국으로 2019년 4월 기준 1인당 GDP가 약 U\$ 15,778로 역대 3위(1위 우루과이, 2위 파나마)를 차지하고 있을뿐 아니라 국제신용평가사 국가신용도(AA-)와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역대 1위를 차지
 - WEF 국가경쟁력(141개국 대상, 2019년 기준) 주요 순위 : 싱가포르(1위), 미국(2위), 한국(13위), 칠레(33위), 멕시코(48위)

(높은 대외개방도) 경제영토 세계 1위 및 아시아국가 교역 비중 확대

- 칠레는 64개국과 26건의 경제협정을 체결하였으며(세계 GDP의 86.3%규모), 2018년 3월 11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서명함
 - 11개 회원국 : 칠레, 페루, 멕시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 또한, 칠레는 2004년 한국과의 FTA 발효 이후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교역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며 교역 비중을 전체 수출의 45%까지 확대함

(광물 및 신재생 자원 부국) 구리, 리튬 세계매장량 및 일조량 세계 1위

- 칠레는 구리, 리튬, 요오드, 은, 레늄, 몰리브덴 등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구리와 리튬은 세계 매장량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광업은 칠레 전체 수출의 45%로 칠레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임
- 또한, 칠레 북부는 세계에서 가장 일조량이 많은 지역이며 이밖에 130개가 넘는 화산과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여건도 매우 우수

나. 교역

칠레 연도별 교역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출	금액	76,791	76,290	74,210	62,042	57,738	65,883	75,404
	증감	-4.9	-0.7	-2.7	-16.4	-6.9	14.1	14.5
수입	금액	70,566	71,578	65,423	56,963	53,344	59,484	67,710
	증감	6.6	1.4	-8.6	-12.9	-6.4	11.5	13.8
무역수지	금액	6,225	4,713	8,786	5,078	4,394	6,399	7,694

자료 : Global Trade Atlas (2019년 10월)

칠레의 국가별 수입 동향

- 2018년 수입액 기준 칠레의 주요 수입 대상 국가는 중국,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독일, 멕시코, 일본, 한국 순
 - 특히 중국은 2006년 10월 칠레-중국 FTA 발효를 계기로 교역이 활기를 띠어 2007년부터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을 추월, 2위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하여 2015년부터는 미국을 제치고 1위 수입 대상국 자리 차지
 - 일본은 2007년 9월 칠레와 체결한 FTA가 발효되었으며, 그 후 2008년부터 일본산 제품의 칠레시장 진출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타이어 등의 제품에서 우리 제품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
- 2018년 칠레의 총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83%가 증가
 - 최근 인도네시아와의 경제동반자 협정(CEPA) 체결('17.12.14)로 차후 칠레의 대인도네시아 수입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칠레 10대 수입대상국

(단위 : 백만 달러, %)

국가명	수입액			비중			18/17 증감
	2016년	2017년	2018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계	53,344	59,484	67,710	100	100	100	13.83
중국	12,461	13,336	15,100	23.36	22.42	22.3	13.23
미국	9,433	10,819	12,883	17.68	18.19	19.03	19.07
브라질	4,731	5,636	6,517	8.87	9.47	9.62	15.64
아르헨티나	2,524	2,908	3,368	4.73	4.89	4.97	15.85
독일	2,227	2,548	2,823	4.17	4.28	4.17	10.79
멕시코	1,890	2,030	2,298	3.54	3.41	3.39	13.21
일본	1,578	1,659	2,001	2.96	2.79	2.96	20.65
한국	1,625	1,782	1,685	3.05	3.00	2.49	-5.45
에콰도르	995	1,455	1,624	1.86	2.45	2.4	11.64
스페인	1,484	1,364	1,600	2.78	2.29	2.36	17.34

자료 : Global Trade Atlas (2019년 9월)

칠레의 품목별 수입 동향

- 칠레의 주요 수입품목은 광물, 기계, 자동차, 전자기기, 플라스틱 등으로 에너지 및 공산품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칠레 10대 수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HS 코드	품목명	수입액			비중			18/17 증감
		2016년	2017년	2018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계	53,344	59,484	67,710	100	100	100	13.83
27	광물연료	7,327	9,380	11,847	13.73	15.77	17.5	26.31
87	철도 및 차량	5,882	7,445	8,885	11.03	12.52	13.12	19.34
84	보일러 기계 및 부품	6,920	7,526	8,204	12.97	12.65	12.12	9
85	전자기계	6,391	6,022	6,355	11.98	10.12	9.39	5.52
39	플라스틱	2,076	2,229	2,452	3.89	3.75	3.62	10.01
30	제약제품	1,190	1,331	1,534	2.23	2.24	2.27	15.23
72	철강	918	1,174	1,511	1.72	1.97	2.23	28.76
2	육류	1,189	1,401	1,474	2.23	2.35	2.18	5.22
90	외과용 기구	1,189	1,227	1,369	2.23	2.06	2.02	11.57
73	철강제품	1,063	1,085	1,332	1.99	1.82	1.97	22.81

자료 : Global Trade Atlas (2019년 9월)

칠레의 국가별 수출 동향

- 2018년 칠레의 수출은 전년대 비 14.45% 증가한 75,404백만 달러 기록
- 2018년 칠레의 주요 수출 대상 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순 2014년에 한국은 대 칠레 10개 수입품목 중 8개 품목의 수입액이 6.8% 증가하면서 칠레 4위 수출 대상국가로 등극

칠레 10대 수출대상국

(단위 : 백만 달러, %)

국가명	수출액			비중			18/17 증감
	2016년	2017년	2018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57,738	65,883	75,404	100	100	100	14.45
중국	16,299	17,951	24,495	28.23	27.25	32.48	36.46
미국	8,161	9,656	10,519	14.13	14.66	13.95	8.94
일본	5,035	5,765	6,827	8.72	8.75	9.05	18.42
한국	4,047	4,079	4,360	7.01	6.19	5.78	6.89
브라질	2,891	3,828	3,436	5.01	5.81	4.56	-10.26
페루	1,480	1,626	1,815	2.56	2.47	2.41	11.63
스페인	1,326	1,651	1,690	2.3	2.51	2.24	2.35
네덜란드	1,579	1,593	1,563	2.73	2.42	2.07	-1.89
캐나다	959	1,315	1,563	1.66	2	2.07	18.9
인도	1,399	1,742	1,488	2.42	2.64	1.97	-14.59

자료 : Global Trade Atlas (2019년 9월)

칠레의 품목별 수출 동향

- 칠레의 주요 수출품목은 구리, 광석, 생선, 과일, 펄프 등
 - 주력 수출품목 중 생산기준 구리, 레늄, 리튬 등은 세계 1위, 펄프, 몰리브덴은 세계 3위이고, 수출기준 포도, 건포도는 세계 1위, 아보카도는 세계 2위, 키위는 세계 3위를 기록
 - 칠레 수출의 대부분이 광물과 농수산물에 집중되어 있어 국제가격 등락에 따라 수출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안정적인 수출기반 확보가 필요한 상황

칠레 10대 수출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HS코드	품목명	수출액			비중			18/17 증감
		2016년	2017년	2018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계	57,738	65,883	75,404	100	100	100	14.45
26	광, 슬랙, 회	13,345	17,027	20,698	23.11	25.84	27.45	21.56
74	동과 그 제품	15,250	17,580	18,564	26.41	26.68	24.62	5.59
3	물, 기타 수생 무척	4,405	5,267	5,887	7.63	7.99	7.81	11.76
8	과일, 견과류	4,995	4,818	5,695	8.65	7.31	7.55	18.2
47	펄프	2,406	2,557	3,578	4.17	3.88	4.74	39.93
44	목재, 목탄	2,281	2,233	2,609	3.95	3.39	3.46	16.82
28	무기화합물	1,456	1,792	2,230	2.52	2.72	2.96	24.46
0	액세서리, 수출제품 샘플 등	1,414	1,591	2,163	2.45	2.41	2.87	35.98
22	음료	1,882	2,051	2,023	3.26	3.11	2.68	-1.36
71	귀석, 귀금속	1,024	1,412	1,622	1.77	2.14	2.15	14.84

자료 : Global Trade Atlas (2019년 9월)

칠레 수입규제 현황

- 칠레 정부는 △음란물 등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는 상품, △독성 산업폐기물 등 기본적인 수입금지 품목 이외에 △중고자동차, △중고 오토바이, △중고 또는 재생 타이어, △모든 종류의 석면류, △보건부, 농림부 등 정부기관에서 지정한 수입금지 품목, △동물, 농업 및 인간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예: 톨루엔 및 휘발성 솔벤트로 제조된 접착제를 사용한 유아용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아래 표와 같은 특정품목의 경우 소관 기관의 허가 또는 인증 필요

칠레 수입 허가/인증 필요 품목 현황

품목	해당 기관
무기, 탄약, 폭발물, 질식성 화학제품 등	국방부 산하 병무청 (DGNM: Direccion General de Movilizacion Nacional) * 홈페이지: www.dgmn.cl 참고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무술 교습서 및 영상 교재	
알코올, 알코올음료 및 식품	
동식물 가공 식품 및 파생상품	농림부 산하 농축청 (SAG: Servicio Agrícola y Ganadero) * 홈페이지: www.sag.cl 참고
식물 및 식물에 유해한 물품	
동물 및 동식물 쓰레기	
비료 및 살충제	
식품	
의약품, 의료용 또는 미용 식품, 화장품,	보건부 산하 공공보건청(Instituto de Salud Pública) * 홈페이지: www.ispch.cl 참고
마취제 및 유해물질 환각제	
방사능물질, 방사능 유발 도구 및 장비	칠레 원자력 위원회 (Comision Chilena de Energia Nuclear) * 홈페이지: www.cchen.cl 참고
수산물	농수산차관실(Subsecretaría de Pesca y Acuicultura) * 홈페이지: www.subpesca.cl 참고
수산물 자원(관상용 포함)	
무선통신장비(주파수 사용에 대한 사전취득 필요)	교통통신부 산하 통신차관청(SUBTEL) * 홈페이지: www.subtel.cl 참조
야생동물국제협약(CITES)에서 보호대상으로 규정한 동식물	야생동물국제협약(www.cite.org)과 소관부처
시멘트	주택도시계획부(Ministerio de Vivienda y Urbanismo)에 등록된 건설품질기술검사소에서 관련 품질 증명서(Certificado de Calidad)를 선발급받아야 함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다. 투자진출

외국인 기업에 대한 차별 없으며, 투자에 매우 개방적

- 칠레 정부는 1974년 DL600(외국인투자법령) 제정 및 2016년 신 FDI법(법률 20,848호) 발효 이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매우 개방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칠레 FDI 유입(백만 달러) 동향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투자 유입액	23,671	20,011	11,942	6,856	7,160

자료 : UNCTAD Statistics 무역관 재구성 (2019년 9월)

투자에 개방적이거나 진입장벽 다수 존재

- (제조용 부품 조달 애로) 칠레는 제조업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칠레를 기반으로 중남미 진출확대를 희망하는 전자제품, 자동차, 기계류 등의 제조업체가 투자를 희망할 경우 연관산업 부재로 부품 현지조달에 어려움 예상

- (높은 에너지 가격과 수급 불안) 칠레는 에너지의 60%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가격이 높고 수급도 불안한 편
- (현지 산업 및 유통기업 독과점에 따른 진입장벽) 칠레의 은행, 통신, 전력, 수도, 인프라 등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민영화 정책으로 인해 유럽 및 미국계 다국적기업이 장악
 - 칠레의 최대 산업인 광업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높은 시장 점유율
 - 유통의 경우 Cencosud와 Falabella 등의 대형유통망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어 후발주자인 신규 기업의 칠레 시장 진입에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 존재
- (환경영향평가 강화로 프로젝트 진출 애로) 칠레에서 광업, 제조업, 임업, 댐 건설, 배전망, 발전 용량 3MW 이상의 발전소, 터미널, 철도, 도로, 항만, 공항, 관광시설 등 21개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칠레 환경평가원(SEA)의 심의 및 승인 필요
 -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의 더딘 심의와 승인으로 인해 대형 프로젝트들이 1년에서 길게는 2년까지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간헐적으로 발생

라. 인프라 프로젝트

교통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 칠레 정부는 산티아고 지하철 2, 3, 4호선 연장을 2022년까지 완료하고, 신규 지하철 7호선(Renca부터 Vitacura까지), 8호선(Av Macul부터 La Florida Oriente까지), 9호선(Av Santa Rosa부터 La Pintana까지) 건설을 2026년까지 마무리할 예정
- 이 외에도, 산티아고와 외곽도시를 연결하기 위한 산티아고 - 메이피야(Santiago-Melipilla) 철도 건설, 산티아고-바투고(Santiago-Batuco) 철도 건설, 산티아고-발파라이소 고속열차(Tren Valparaíso Santiago, 이하 TVS) 건설이 진행될 예정
- 산티아고-발파라이소 고속열차의 경우, 이전 정부에 의해 CREC(China Railway Group Limited, Sigdo Koppers, Latinoamérica Infraestructura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회사)가 프로젝트 운영사로 선정되었으나, 피네라 신정부는 국가 입찰법에 따라 2019년 중으로 국제 입찰을 통해 신규 프로젝트 운영사를 선정하기로 변경함. 이로 인해, TVS의 예상 투자 규모가 16억 달러에서 24억 달러로 크게 증가
- 2023년까지 주요 도시의 전동차와 케이블카 신설을 위한 입찰 예정

도로건설 프로젝트

- 칠레 북부 아리카(Arica)부터 남부 칠로에(Chiloe)까지 연결하는 3,364km 길이의 5번 국도(Ruta 5)의 기존 양허계약이 구간별로 2020~2024년 사이에 종료될 예정임. 이에 따라, 각 구간별 보수 및 도로 확장을 위한 신규 입찰이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

- 또한, 각 지방 도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입찰과 장벽없는 칠레(Chile sin barreras) 전략*하에 실시되는 고속도로 입찰이 68번, 78번, 5번 도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
 - 장벽 없는 칠레(Chile sin barreras) 전략: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무정차통행료시스템을 설치하여 산티아고와 연결된 외곽도로의 도로정체와 사고를 줄이고, 도시 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계획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공항 및 항만 증축 프로젝트

- (공항) 칠레 내의 유동인구 증가로 공항 증축공사가 산티아고 국제공항 외 네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아타카마(Atacama), 라세레나(La Serena)등 다섯 개의 공항의 양허계약이 종료 될 예정에 있어 신규 운영사 선정을 위한 입찰 예정
- (항만) 인근 국가의 국제교류 증가로 인해 칠레 항구의 이용률이 늘어나, 산티아고에서 한 시간 반 거리에 있는 산 안토니오(San Antonio)의 '대형 항구(Puerto de Gran Escala)'건설 입찰이 2020년에 진행될 예정이나, 아직까지 정확한 일정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가. 교역

한-칠레 교역 동향

- 우리나라와 칠레의 교역관계는 2004년 양국 간 FTA 발효를 계기로 교역량이 약 4배 증가하는 등 크게 활성화되기 시작함.
- 한국산 제품들은 자동차, 기계류, 플라스틱 제품 등 여러 품목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은 칠레와 안정적인 교역 중

한국의 대(對)칠레 주요 수출품목

(단위 : 천 달러, %)

순위	HS 코드	품목명	2017년		2018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87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866,603	1.2	880,993	1.7
2	84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그 부분품	105,501	-34.5	124,693	18.2
3	27	광물성 연료·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100,609	-16.1	267,220	165.6
4	89	선박과 수상 구조물	1,540	0.0	4	-99.7
5	85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92,674	-1.6	83,172	-10.3
6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94,328	-7.1	133,009	41.0
7	25	소금, 황, 토석류, 석고·석회·시멘트	17,723	-20.8	47,096	165.7
8	72	철강	22,910	-21.6	22,519	-1.7
9	29	유기화학품	31,212	61.2	29,941	-4.1
10	73	철강의 제품	21,213	-26.4	14,864	-29.9
11	40	고무와 그 제품	26,060	-10.5	24,006	-7.9
12	90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측정기기·정밀기기·의료용기기	19,661	-4.0	16,957	-13.8
13	28	무기화학품, 귀금속	3,423	20.2	13,021	280.4
14	74	구리와 그 제품	14,116	-31.1	8,485	-39.9
15	34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 등	11,333	74.0	8,897	-21.5
16	55	인조단섬유	10,903	17.1	13,743	26.0
17	56	워딩·펠트·부직포 등	7,271	10.0	9,458	30.1
18	30	의료용품	5,209	12.8	7,007	34.5
19	48	종이와 판지와 그 제품	6,208	-27.6	13,353	115.1
20	94	가구, 침구·매트리스·쿠션 등	3,333	-17.1	3,086	-7.4

자료 : KOTIS 무역통계 (2018년 12월)

한국의 대(對)칠레 주요 수입품목

(단위 : 천 달러, %)

순위	품목 코드	품목명	2017년		2018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26	광·슬래그·회	1,328,744	52.2	1,821,511	37.1
2	74	구리와 그 제품	1,235,099	-12.1	1,163,910	-5.8
3	28	무기화합품·귀금속	298,830	51.3	439,326	47.0
4	47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263,201	9.6	295,211	12.2
5	44	목재와 그 제품, 목탄	135,605	19.0	141,449	4.3
6	8	식용의 과일과 견과류	158,651	-5.8	171,036	7.8
7	2	육과 식용 설육	119,464	-1.2	132,885	11.2
8	3	어류·갑각류	101,750	24.4	146,051	43.5
9	23	식품 공업 잔재물, 조제 사료	49,612	-1.1	47,674	-3.9
10	22	음료·주류·식초	40,664	-1.2	46,314	13.9
11	20	채소·과실·견과류	17,732	4.5	18,037	1.7
12	11	제분공업의 생산품	6,144	-3.8	93	-98.5
13	4	낙농품·새의 알·천연꿀	5,812	89.9	3,408	-41.4
14	15	동물성, 식물성 지방과 기름	4,946	84	4,272	-13.6
15	12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7,178	30	8,825	22.9
16	68	돌·플라스터·시멘트·석면 등	2,991	353.9	1,729	-42.2
17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3,418	5.7	2,416	-29.3
18	16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2,224	-10.3	3,001	34.9
19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1,079	-12.6	1,439	33.4
20	5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1,151	18.5	1,684	46.3

자료 : KOTIS 무역통계(2018년 12월)

수출 성공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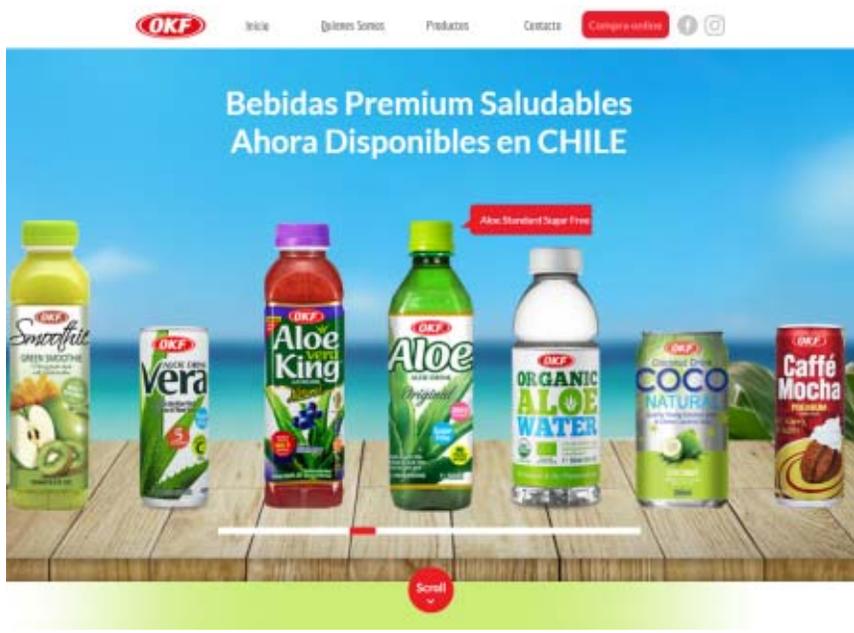
칠레 음료시장을 강타한 OKF 웰빙음료

OKF 기업은 최근 탄산음료의 해악성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과일과 채소를 이용한 웰빙음료 개발로 한국 및 해외 155개국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OKF는 해외 수출량 확대를 위해 매년 약 40회 가까운 세계의 유력 식품 전시회에 참가하여 바이어 발굴을 도모하고 있으며, 칠레에서도 신규 바이어 발굴을 위해 식품 전시회를 참가하기 시작해, 2016년부터 일부 바이어들에게 상품을 수출하기 시작함. 또한, 현지 유통망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KOTRA 산티아고의 지사화 서비스를 통해 칠레 현지 기업 중 쉽게 접근하기 힘든 글로벌 유통사를 접하면서 유통망을 넓혀감.

그러던 중 2016년 6월 칠레정부는 식품에 함유될 수 있는 칼로리와 소금, 설탕, 지방의 기준치를 규정하고, 이 기준치를 넘을 경우 상품의 패키지에 해당 성분이 다량 함유되었음을 표시하는 라벨링 법을 신규 제정함. 이 결과, 칠레 식품 시장에서는 새로운 웰빙 트렌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속에서 OKF의 음료는 알로에를 이용한 저칼로리의 건강음료로서 고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2018년 건강음료 시장에서 매출 6위를 달성함. 현재 OKF음료는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몸매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강 음료로 인식되면서, 그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알로에 음료가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자, OKF는 알로에 제품 외 코코넛, 스파클링, 스무디, 커피, 에너지 음료 등의 제품을 통해 상품라인을 확대하고 있음.

이런 OKF의 성공요인은 현지 시장의 정부 정책과 소비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상품 수출과 수입 라인인 다각화에 있음.

OKF 칠레 홈페이지



자료 : <http://www.aloedrink.cl/>

나. 투자

📌 양국 간 교역규모에 비해 투자진출은 미미하나 FTA 후 투자 점진적으로 늘어나

- 우리나라는 칠레의 5대 교역국에 포함될 정도로 칠레와 활발한 교역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투자 분야에서는 그 비중이 매우 미미함
 - 칠레 외국인 투자 위원회의 집계에 따를 경우 1974년부터 2013년까지 D.L.600 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 위원 회의 허가를 받은 한국의 투자규모는 대(對)칠레 총 외국인 투자액의 0.2%에 불과함. 다만 우리나라 기업의 대(對)칠레 투자건수는 2004년 한-칠레 FTA를 발효 이후 증가

📌 광업분야에 투자집중, 분야별 구분에는 큰 의미 없어

- 한국수출입은행 투자금액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 칠레 투자는 업종별로 광업 69.1%, 도소매업 15.3%, 제조업 7.4%, 건설업 5.5% 등의 분포를 나타냄
 - 다만, 고려해야 할 것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투자와 현지 금융을 통한 투자액, 투자 청산액 등이 제외되어 있는 점

우리나라의 대(對)칠레 연도별 투자현황

(단위 :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합계	176	69	460,855	204	405,786
1999년 이전	53	3	67,614	67	55,597
2000	3	0	1,063	2	1,000
2001	1	0	63	0	0
2003	3	21	15,300	2	5,500
2004	3	3	1,782	4	11,510
2005	5	2	3,306	6	638
2006	9	8	4,931	15	4,327
2007	12	2	30,331	9	26,295
2008	4	2	2,720	5	2,630
2009	7	2	6,054	5	6,052
2010	4	3	39,932	4	18,929
2011	12	6	145,976	15	145,556
2012	16	3	36,943	12	15,270
2013	15	5	14,792	22	34,199
2014	14	6	43,859	15	41,126
2015	22	4	29,245	19	31,159
2016	16	3	46,189	21	37,157
2017	30	3	187,929	30	184,399
2018	22	5	84,582	18	83,83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2018년 12월)

- 칠레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주로 판매법인과 지사 형태로 진출해 있으며, 전자, 자동차, 타이어, 플랜트, 의료 위주의 진출에서 광업, 에너지 등으로 진출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음

칠레 투자진출 사례

- 제조업 분야로는 1993년 이견산업이 목재 가공업을 위해 진출하였고 2007년에는 신광목재 투자 진출(2015년 철수)
- 포스코 건설은 미국계 전력회사인 AES Gener 社の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EPC 입찰을 수주하여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2006년 하반기에 칠레에 사무소를 개설
 - 포스코 건설은 2006년 벤타나스 석탄화력발전소 수주를 시작으로 2019년 까지 총 6개의 대형 화력발전소 완공을 통해 입지 확장
- 2013년에는 SK건설이 Red Dragon 석탄 화력발전소(12억 달러)를 수주하는데 이어, 남부발전 컨소시엄이 Kellar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IPP 프로젝트를(6억 달러)를 수주했으며,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칠레의 국책사업인 차카오대교 건설프로젝트(74억 달러)를 2014년에 수주하면서 칠레 프로젝트 시장 내 우리기업의 점유율을 확장

-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1년 칠레 엔엑스우노(NX1) 리튬광산 개발사업을 위해 삼성물산과 컨소시엄을 구성, 칠레 코피아포의 지분 30%를 인수하였고, 산토도밍고 동광 프로젝트도 참여하고 있음. LG상사는 에너지기업 지오파크(Geopark)의 지분 20%를 인수하여 칠레 원유 및 가스 개발에 참여

칠레 진출 한국기업 현황

순번	업종	회사명
1	공공	KOTRA
2		중소기업진흥공단
3		광물자원공사
4		보건산업진흥원
5	전자	삼성전자
6		LG전자
7		위니아대우(전자)
8	건설·플랜트	포스코건설
9		현대건설
10		SK건설
11		삼성물산(건설)
12		두산중공업
13	상사	현대종합상사
14		포스코대우
15		현대모비스(지사 개설중)
16		삼성물산(무역)
17	의료	세라젬
18		아이센스
19	물류	현대상선
20		유코카캐리어스
21		범한판토스
22		태웅로직스
23	유통	CJ 프레시웨이(식자재)
24		테트라씨(화장품)
25	타이어	한국타이어
26	발전	남부발전
27		남동발전
28		Kelar(남부발전/삼성물산 합작법인)
29	에너지(태양광)	한화큐셀
30		S-에너지
31		한양정공
32	목재	이건산업
33	제련(귀금속)	PRM(LS-NIKKO)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한-칠레 FTA 개정 협상 중

- 한국은 2003년 2월 15일 칠레와 전 세계 국가 중 처음으로 FTA를 체결, 2004년 4월 1일 발효
 - 2016년 타이어, 철강제품(평판압연, 합금강), 조명기구 등 13년 유예품목에 대한 관세까지 철폐되면서 현재 총 7,838개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음
 - 하지만 FTA 협상 당시 한국 측은 사과, 배, 고추, 미늘 등 일부 농산물을 개방하지 않았고, 칠레도 자국산업 보호 차원에서 냉장고, 세탁기 등을 비롯한 총 96개 품목을 FTA 무관세 제외 품목으로 지정

한-칠레 FTA 관세철폐 및 주요 무관세 제외 품목

(단위 : 개, %)

유형	전체		주요 무관세 제외 품목
	품목 수	비중	(HS 코드) 품목명
즉시	3,540	44.6	(8418.10) 냉장·냉동고
3년 후	1	0	(8450) 가정형 또는 세탁소형의 세탁기
5년 후	2,467	31.0	(4012.10) 재생타이어
7년 후	20	0.3	(4012.20) 중고 공기타이어
10년 후	1,520	19.2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
13년 후	290	3.7	(1701)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무관세 제외	96	1.2	(1101)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계	7,934	100.0	(2106.9010)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의 베이스

주: 무관세 제외 품목은 기본 관세 6% 부과

자료 : 한-칠레 FTA 협정문 무역관 재구성

- 무관세 품목 확대와 더불어, 현재 한-칠레 FTA 협정문이 양국의 변화된 경제구조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서비스, 투자, 원산지증명 등 세부규정이 최신 국제규범과 거리가 있어 FTA 개선 협상에 대한 필요성 대두



Ⅲ. 진출전략

- ※ 중남미에서 가장 안정된 정치·경제적 환경을 보유
- ※ 디지털 산업, 보건의료, 신재생에너지 분야 진출을 통한 신산업 수출
- ※ 현지 프로젝트 참여 및 창업을 통한 진출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칠레 시장 SWOT 분석>

<div style="border: 1px solid #0070C0; border-radius: 15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24px;">S</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10px;">강점 (Strengt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남미에서 가장 안정된 정치·경제적 환경 • 개방경제 및 자유무역 기조 유지 • 구리, 요오드, 레늄, 리튬 등 자원부국 • 낮은 공공부채비율 • 중산층 확대에 따른 신수요 발생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808000; border-radius: 15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808000; color: white;">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24px;">W</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10px;">약점 (Weaknes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재 수출 의존형 경제 • 빈약한 제조업 기반 • 중국 경제에 대한 심각한 경제의존도 • 심각한 소득 불균형 • 물류·유통업의 과점 현상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008080; border-radius: 15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008080; color: white;">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24px;">O</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10px;">기회 (Opportun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신정부 출범 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감소 • 기준금리 인하 (2%) • 디지털 및 4차 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 • 구리 가격 회복 및 경기 반등세 조짐 •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진행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800080; border-radius: 15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800080; color: white;">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24px;">T</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10px;">위험 (Threa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가 작고 취약한 국내수요 •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 •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 우리나라는 기 진출 분야가 자동차,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에 편중 </div>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신정부 정책에 맞춰 교역 및 투자 강화 • 경기 반등세 및 확대되는 중산층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품목 개발 및 수출 	경기 반등세와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교역 및 투자 강화
ST 전략 (강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레를 중남미 진출의 허브로 활용하여 협소한 수요층 극복 • FTA 개정 협상을 통해 무관세 확대 및 비관세장벽 완화 → 가격경쟁력 극복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서 칠레 시장의 가치 제고
WO 전략 (기회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스마트마이닝 등 ICT 분야 진출 • 소득불균형에 기반한 소비패턴 분석 및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마케팅 	디지털 분야 진출 및 디지털 활용 마케팅
WT 전략 (위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부각되고 있는 편의점 및 전자상거래 진출 • 고품질 다품종 선호도에 맞춘 마케팅 	수출품목 및 유통의 다각화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1. 칠레의 국가 디지털화 계획을 활용한 시장진출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칠레 정부는 디지털 정부 부처 설립을 통해 2022년까지 국가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28일과 29일에 이루어진 한-칠레 정상회담에서 '국방협력협정'을 비롯해 '전자정부 협력 MOU', 'ICT 협력 MOU', '교통 협력 MOU'가 체결됨
- 이 중 사이버보안, 5G 정보통신, 4차 산업혁명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및 기업 참여가 기대됨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칠레 정부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 정부 부처를 신설하여 2022년까지 국가 디지털화를 추진 중
 - 피네라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는 4대 분야로 전자정부 및 국가 현대화 사업, 4차 산업 위주의 미래 경제, 사이버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요청
 - 2019년 4월 28일과 29일에 이루어진 한-칠레 정상회담에서 '국방협력협정'을 비롯해 '전자정부 협력 MOU', 'ICT 협력 MOU', '교통협력 MOU'가 체결됨. 특히, 사이버보안, 5G 정보통신, 4차 산업혁명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및 기업 참여 기대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UN이 발표하는 국제 사이버보안 지수에서 대한민국은 2018년도에는 15위를 기록함으로써 사이버 보안 분야에 있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세계적으로 입증됨. 이와 관련하여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칠레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칠레의 경우 동 지수에서 83위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 칠레 은행(Banco de Chile)의 해킹 사건으로 1만 4,000 명의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되는 등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경각심 및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
- 아울러 통신에서는 칠레 정보통신부(MTT)가 2019년 2월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obile World Congress 행사에서 통신차관청(SUBTEL)을 통해 국가 5G망 입찰을 발표하였으며, 5G 기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입찰될 5G 주파수의 세부정보는 아래와 같음

구분	주파수	대역 폭
저주파 (Low)	700 MHz	20 MHz
중주파 (Medium Low)	AWS	30 MHz
중주파 (Medium High)	3,5 GHz	50 MHz
고주파 (High)	28 GHz	850 MHz

-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스마트마이닝 등 ICT 분야 진출도 유망하며, 특히 칠레의 주요 산업인 에너지 및 광산 등에 접목할 수 있는 우리 기술의 진출 기대

2-2. 고령화 및 보건 정부정책으로 성장 중인 의료기기 시장 공략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칠레의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중남미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1인당 의료 소비액은 중남미 내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칠레는 의료 제조기반이 약한 나라로, 의료기기 수요의 약 95%를 수입으로 충족하고 있어 시장 규모 대비 수입 수요가 큰 편에 속함
- 아울러 5종류(실험용·수술용 장갑, 콘돔, 일회용 주사기, 바늘)의 의료기기를 제외하면 인증이 필요하지 않아 비교적 낮은 진입 장벽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칠레의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중남미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1인당 의료 소비액은 중남미 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증가, 공공보건 투자 증가, 의료부문 민관협력 증가, 공공 및 민간 의료보험 서비스 범위 증가 등으로 인해 칠레의 의료기기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

칠레 의료기기 시장규모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시장규모 (백만 달러)	909.4	969.9	1062.3	1120.2	1188	1256.6

자료 : BMI Chile Medical Devices Report, Q4 2019

- 아울러 칠레는 2025년까지 고령인구 비율이 약 14.3%까지 상승할 전망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어 의료 수요 증가 예상
- 반면 칠레는 의료 제조기반이 약한 나라로, 의료기기 수요의 약 95%를 수입으로 충족하고 있고, BMI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칠레의 의료기기 수입량은 2017년 대비 약 14.1% 증가한 8억 6,090만 달러를 기록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인증절차가 비교적 복잡한 제약분야와는 달리 칠레의 경우 의무인증이 필요한 의료기기는 총 5종류(실험용·수술용 장갑, 콘돔, 일회용 주사기, 바늘)에 불과
-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최근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다만 현재 칠레 의료기기 시장에서 미국산 및 유럽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기업은 전시회 참여 등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

- 안정적인 초기 시장진입을 위해 KOTRA 지사화 서비스 혹은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여 바이어를 발굴하는 것도 추천하는 방법
- 품목별로 분석해보면 의료용 소모품 및 기타기기의 시장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수요처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칠레 부분별 의료기기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의료용 소모품	191.7	200.5	216.7	226.1	237.5	249.2
영상진단 기기	136.9	151.4	170.6	182.7	196.1	209.5
치과용 기기	70.9	74.7	80.9	84.5	89	93.5
정형외과 기기	112.2	116.7	125.1	129.5	134.9	140.2
환자보조기	84.2	89.8	98.2	103.6	110.1	116.6
기타 기기	313.4	336.7	370.8	393.6	420.5	447.6
총계	909.4	969.9	1,062.3	1,120.2	1,188	1,256.6

자료 : BMI Chile Medical Devices Report, Q4 2019

- 다만, 최근 정부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건 법안(Ley de Farmacos)을 개정하고 있으며,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의료기기에 대한 등록, 관리감독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함

2-3.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칠레는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 국가로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약 62%임
- 다만 칠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최적의 지리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에너지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칠레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자연조건에 비해 기술력이 비교적 부족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외국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짐

주요 이슈 및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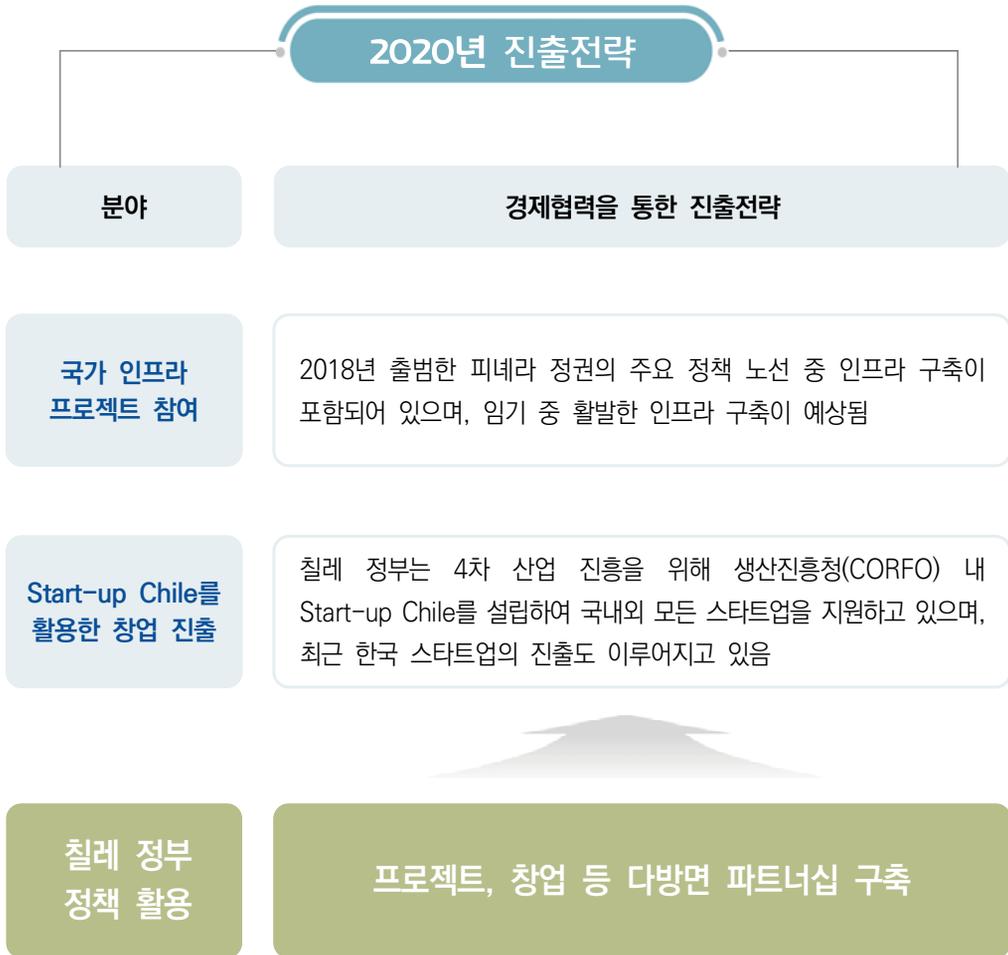
- 칠레는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 국가이며,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01~2015년 칠레 에너지 수입 평균은 약 62%(전체 에너지 사용 대비 비율)로 같은 기간 아르헨티나(-16%), 브라질(10%), 콜롬비아(-220%), 페루(10%)보다 월등히 높음
- 2007~2008년 에너지 위기(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수력발전량 감소, 아르헨티나의 천연가스 공급 제한 등)로 인해 칠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에너지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2008년 ERNC 법을 제정, 칠레 영토의 조건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 2013년에는 신재생에너지법(법률 20,698호)을 수립하여 2025년까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로 증가시키도록 의무화함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정부의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 및 칠레의 자연환경으로 인해 설치가 간편한 태양광(PV) 산업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 칠레 태양광 모듈(HS Code 8541.40) 수입 시장은 칠레의 경제 상황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2018년 수입규모는 최근 경기 회복에 힘입어 전년 대비 102% 상승한 9,198만 달러를 기록
- 2018년 기준 중국산 태양광 모듈은 전체 수입 시장의 93.7%를 차지하여 압도적인 점유율을 이어가고 있음. 중국산 상품의 주요 수입회사는 중국에 제작 공장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과 칠레 태양광 모듈의 수입 및 설치 회사임.
 - 다만 칠레는 자외선이 강해서 저가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표면에 실금이 쉽게 갈 수 있으므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전력의 발전 또는 사용과 관련된 태양광발전 구성품(모듈, 인버터, 계량기 등)의 유통·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칠레 전기연료관리국(SEC)의 기술검사 및 인가(Autorización) SEC인증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초기에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 보다는 현지 수입업체를 통한 진출 추천

3 한-칠레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1. 칠레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시장진출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칠레 정부는 적극적인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피네라 정부 출범과 함께 인프라 시장은 더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됨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18년 출범한 피네라 정부는 향후 8년간 20억 달러 규모의 Programa Chile Invierte 2025(2025년 칠레 투자 프로그램)과 2028년까지 현 수도권교통시스템(Transantiago)을 대체할 74억 달러 규모의 삼천년 교통시스템(Transporte Tercer Milenio) 구축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칠레 공공 인프라 투자 활성화가 예상됨
 - 앞으로의 도로 및 교통, 용수, 의료 분야의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

진출전략

- 칠레 프로젝트 시장은 오랜 경험이 있는 미국, 유럽 및 낮은 단가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두드러짐. 따라서 안정적인 시장진입을 위해 프로젝트 수주 경험이 있는 현지 기업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동반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칠레 정부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입찰 계획은 아래와 같음
 - 다만, 여러 변수에 의해 프로젝트의 입찰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에 연락하여 입찰 일정 수시 확인 추천

도로 관련 입찰 계획

(단위 : 백만 달러)

프로젝트	분야	발주기관	투자규모	입찰 예정일
Orbital Sur	도로	MOP	134	2020.03
Ruta 5: Temuco-Río Bueno+Accesos a Valdivia	도로	MOP	543	2020.07
Ruta 78	도로	MOP	536	2020.09
Ruta 5: Chillan-Collipulli + Puente Malleco	도로	MOP	274	2020.10
Corredores de Transporte Publico Grupo	도로	MOP	24	2021.03
Ruta 5: Caldera Antofagasta	도로	MOP	628	2021.03
Ruta 5: Vallenar - Caldera	도로	MOP	355	2021.04
Ruta 68	도로	MOP	571	2021.06
Ruta 5: Iquique-Antofagasta	도로	MOP	508	2021.08
Acceso Norte Concepción	도로	MOP	419	2022.04
Ruta 5: Santiago-Los Vilos	도로	MOP	515	2022.04
Ruta Fronteriza Entrelagos	도로	MOP	149	2022.07
Ruta Pie de Monte	도로	MOP	168	2022.09

Conexión Vial Coquilemu-Hualqui-Coronel	도로	MOP	101	2022.10
Autopista Costanera Central T1	도로	MOP	1,257	2023.01
Ruta 57: Santiago-Colina-Los Andes	도로	MOP	375	2023.03
Ruta 5: Collipulli-temuco	도로	MOP	250	2023.10
Ruta Metropolitana de Puerto Montt	도로	MOP	396	2023.10

자료 : 칠레 공공사업부(MOP) 자료 재구성 (2019.1Q)

공항 및 항구 관련 입찰 계획

(단위 : 백만 달러)

프로젝트	분야	발주기관	투자 규모	입찰 예정일
Puerto de Gran Escala	항구	교통통신부	정보없음	2020(미정)
Aeropuerto El Ioa	공항	MOP	50	2021.06
Aeropuerto Regional de Atacama	공항	MOP	42	2022.04
Aeropuerto de la Araucania	공항	MOP	84	2022.07

자료 : 칠레 공공사업부(MOP) 자료 및 교통통신부 자료 종합 (2019.1Q)

의료 및 기타시설 관련 입찰 계획

(단위 : 백만 달러)

프로젝트	분야	발주기관	투자규모	입찰 예정일
Grupo de Hospitales IV : Red de Los Rios	의료	MOP	230	2020.03
Grupo de Hospitales V : Red Coquimbo	의료	MOP	662	2020.06
Grupo de Hospitales VI : Metropolitano Norte	의료	MOP	230	2020.09
Grupo de Hospitales VII : Institutos Cancer y Neurocirugia	의료	MOP	414	2021.06
Centro Civico de la región de los Rios	건축	MOP	40	2019.08
Aeropuerto Arturo Merino Benítez-Duty Free	면세점	MOP	미정	2019.12
Embalse Zapallar	수로	MOP	357	2020.12
Embalse Catemu	수로	MOP	466	2022.12
Estadio Techado P.O'Higgins	경기장	MOP	31	2023.07

주 : 상기 입찰 일정은 2018년 12월 기준임.

자료 : 칠레 공공사업부(MOP) 자료 및 주요 일간지 자료 종합 (2019.1Q)

3-2. Start-up Chile를 활용한 창업 진출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칠레는 산업 다각화 및 IT 산업 진흥을 위해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Start-Up Chile를 운영하고 있으며, Start-Up Chile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내·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외국 스타트업의 진출도 두드러짐
- 최근 한국 스타트업도 Start-Up Chile 프로그램을 통해 칠레에 창업한 사례가 있어 우리 스타트업들의 활발한 칠레 진출이 기대됨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칠레 생산진흥청(CORFO)은 2010년 창업지원조직 스타트업 칠레(Start-Up Chile)를 설립하여 칠레 내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칠레의 지원 프로그램은 세계에서 열 번째로 큰 규모로 주 대상은 IT 분야와 전문 제조기술이 있는 스타트업
- 지원대상은 칠레 거주자뿐만 아니라 칠레를 거점으로 남미 지역에 사업을 키우려는 전 세계의 예비 기업가들이며, 연간 120~160개의 신규 기업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 중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현재 스타트업 칠레의 프로그램은 'The S Factory', 'Seed', 'Follow on Funds'의 총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프로그램은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원자를 모집
 - 2018년에는 스타트업 칠레 프로그램에 최초로 한국기업 D사가 선정됨
 - 칠레에 IT 같은 4차 산업과 관련 창업에 관심이 있다면 Start-Up Chile 프로그램 활용 진출을 추천

스타트업 칠레 창업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구분	세부 내용
The S Factory	목적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여성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
	대상	국적불문 만 18세 이상의 여성 사업가 또는 창업 6개월 이내 여성 스타트업
	지원혜택	지원금 1,000만 칠레페소(약 1만 5,000달러), 창업교육, 멘토링, 워크숍, 사무공간, 1년 임시 거주 비자
	지원기간	4개월
	모집기간	매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SEED	목적	혁신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갖춘 신생기업의 칠레 내 성장 가속화
	대상	국적불문 만 18세 이상의 예비 창업가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스타트업
	지원혜택	지원금 2,500만 칠레페소(약 4만 달러), 창업 교육, 멘토링, 워크숍, 사무공간, Start-Up Chile 커뮤니티 이용 권한, 1년 임시 거주 비자
	지원기간	7개월
	모집기간	매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Follow on Funds	목적	칠레 법인(스타트업)의 세계 진출 지원
	대상	연간 총 매출액이 2,000만~6억 칠레페소(약 3만 2,000~95만 2,000달러)인 설립 6년 이내 기업
	지원혜택	지원금 4,000만 칠레페소(약 6만 달러), 비즈니스 컨설팅
	지원기간	12개월
	모집기간	매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자료 : 스타트업 칠레 홈페이지

4 진출 시 유의사항

독점권 요구 빈번	다품종 소량주문이 일반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레는 60여 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완전 개방 자유무역국가로 시장경쟁이 치열하므로, 바이어들은 다른 업체와 같은 제품을 가지고 가격경쟁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고 싶어하며, 처음부터 독점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대응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점권 부여의 경우 일정 기간 바이어의 제품 유통능력, 고객 서비스 능력 등 사전 검증을 반드시 거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반면, 제품군별로 별도 독점권을 계약할 수 있으므로, 현지 유력 바이어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후, 칠레에서 시장성을 인정받은 후에 타 바이어와 추가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경우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레는 인구 1,800만 명의 비교적 작은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안정적인 거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바이어들은 처음부터 대량주문보다는 다품종 소량주문을 선호하는 편 ■ (대응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레 바이어들에 의하면 한국 수출업체에서 칠레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높은 기준의 최소주문 수량을 제시해 상담이 진전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어, 첫 거래를 시작하고 반응이 좋으면 주문량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에 소량주문에 유연하게 응할 필요가 있음
메일 수신여부 확인 필요	영어구사 능력이 낮아 회의 및 이메일 교신 시 장애가 많은 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서 보낸 이메일이 칠레 이메일 계정에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대개 메일 발송자 이름이 한글로 설정되어 칠레 이메일에 발신자 명이 '물음표(???)'로 표시되어 스팸 메일로 분류되기 때문 ■ (대응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일 계정의 개인정보 설정 또는 기본 정보 수정에서 발신자명을 영문 이름으로 바꾸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첨부 파일의 경우 한글로 작성된 문서는 바이어가 볼 수 없으므로 PDF 파일로 변환하거나 바이어가 볼 수 있는 엑셀, MS워드, PDF 변환 파일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포맷을 사용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가 가능한 바이어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대부분 통역원을 활용하여 거래를 진행하며, 일방적인 영어 이메일 교신은 바이어의 묵묵부답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임 ■ (대응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하다면 스페인어가 가능한 인력을 통해 바이어와 스페인어로 교신하거나, 카탈로그를 스페인어로 번역해 이용하면 현지 바이어들에게 훨씬 더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음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HS Code	9018	수입관세율(%)	0%
의료기기	수입액('18/백만달러)	454	대한수입액('18/백만 달러)	6.5
	선정사유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수요 상승		
	시장동향	2018년 총 수입액 453,777,430달러 (△16.55%)		
	경쟁동향	2018년 수입국 1위 미국(31.4%), 2위 독일(16.7%), 3위 중국(10%)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바이어 발굴, 현지 시장 조사 및 제품 홍보 - 유럽/미국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전시회 참여 등을 위한 인지도 확보 필요 		
품목명 2	HS Code	3304	수입관세율(%)	0%
화장품	수입액('18/백만달러)	192	대한수입액('18/백만 달러)	2.8
	선정사유	중산층 증가로 인한 구매력 증가로 화장품 수요 상승 중		
	시장동향	2018년 총 수입액 191,740,000 달러 (△7.8%)		
	경쟁동향	2018년 수입국 1위 미국(16.5%), 2위 프랑스(15.3%), 3위 콜롬비아(12%)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과 타겟 고객에 따른 전략 구성 - 유기농 및 기능성 화장품 시장 공략 		
품목명 3	HS Code	9405	수입관세율(%)	0%
LED 전등	수입액('18/백만달러)	212	대한수입액('18/백만 달러)	1.1
	선정사유	에너지 효율성 높이는 지능형 LED 조명 인기 급상승		
	시장동향	2018년 총 수입액 211,500,067 달러 (△12.9%)		
	경쟁동향	2018년 수입국 1위 중국(78.2%), 2위 미국(4.2%), 3위 스페인(4.1%)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 경쟁력 및 에너지 효율성 견비 - 사용환경에 따른 시스템 조절 기술 개발 		
품목명 4	HS Code	8541.40	수입관세율(%)	
태양광 패널	수입액('18/백만달러)	92	대한수입액('18/백만 달러)	
	선정사유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의 44%가 태양광 발전임		
	시장동향	2018년 총 수입액 91,981,651 달러 (△102.68%)		
	경쟁동향	2018년 수입국 1위 중국(93.7%), 2위 미국(1.4%), 3위 말레이시아(1.0%)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으로 인증된 기술력 홍보 - 중국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가격 		
품목명 5	HS Code	8708.99	수입관세율(%)	수입관세율(%)
자동차 부품	수입액('18/백만달러)	113	대한수입액('18/백만 달러)	대한수입액('18/백만 달러)
	선정사유	칠레는 자동차 제조가 전무하여, 교체 주기가 짧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 ↑		
	시장동향	2018년 총 수입액 113,027,242 달러 (△16.39%)		
	경쟁동향	2018년 수입국 1위 미국(33.8%), 2위 중국(11.3%), 3위 브라질(7.5%)		
	진출방안	-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브랜드 마케팅 실시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의료 - 원격의료기기	선정사유	칠레 인구 고령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매년 의료분야 소비지출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웰빙, 건강에 대한 관심 확대로 가정용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 전망이 매우 긍정적
	시장동향	칠레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지형과 비교적 적은 인구수로 인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현상이 심한 편이며, 이로 인해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음.
	경쟁동향	현재까지 칠레에서 사용되는 원격의료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없으나, 미국 또는 유럽(특히 프랑스, 독일 등)에서 수학한 대다수 칠레 의사들이 Intouch Health (미국), Intuitive Surgical(미국) 기업과 같은 선진국 기업의 고급 원격의료장비를 적시수요(On-demand) 형태로 수입하여 이용하는 경향이 강함. 공공의료에서 주로 사용되는 원격의료장비는 화상회의 및 데이터 송신이 가능한 기초적인 장비인 경우가 많음
	진출방안	칠레 원격의료는 1993년부터 시작되어 상당히 긴 역사를 자랑하며, 대다수 칠레 의료인들이 유럽과 미국에서 수학을 하였기에 한국산 의료기기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칠레 대형병원 의료인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마케팅을 통해 인지도를 확립하여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품목명 2		
SW - 사이버 보안	선정사유	최근 칠레 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고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여 기업, 특히 금융기관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 급증
	시장동향	2017년 칠레 최초의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이 수립되었고, 칠레상업·서비스·관광 회의소, Microsoft, 부정거래연구소가 공동으로 발간한 2016년 사이버 보안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 43%만 예방조치(바이러스 퇴치 프로그램 사용 98.2%, 높은 보안 수준의 암호 사용 96.1%, 무료 음악 및 비디오 내려받기 금지 68.3%)를 취했다고 밝혀 관련 서비스에 대한 공급이 시급
	경쟁동향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칠레 사이버 보안 시장에 ITSec, Wodefense 등 현지 중소형 기업 정도만 활동하고 있으며, Cisco, Deloitte, IBM 등 다국적 기업은 최근예야 본격적인 진출의사를 밝힘. 시스코 IDC Skills Gap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칠레에는 수요 대비 ICT 전문가 1만 9,500명(약 30%)이 부족한데, 특히,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빅데이터, 비디오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전문가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밝힘
	진출방안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에 맞춰 디지털 정부화에 필요한 사이버 보안 기술에 대해 정부 간 협의를 통해 국내 우수 사이버 보안업체의 칠레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야 하며,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기업의 직접 시장 진출(금융, 전자상거래 보안 등)도 매우 유망함

첨부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2020년 중남미 통합사절단(잠정)

- 일시 : 미정
- 장소 : 칠레 산티아고, 콜롬비아 보고타, 페루 리마
- 품목 : 소비재, 플랜트, 자동차, 보건, 신재생 전반

첨부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지방자치선거(Elecciones Municipales)	2020.11.22	
칠레 총선 및 대선	2021.11.14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한-칠레 FTA 개선 협상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FIDAE (칠레 항공 전시회)	2020.3.31 ~ 4.5	
EXPOMIN (칠레 광산 전시회)	2020.4.20 ~ 24	
IOT Innovatech Latam (칠레 IOT 전시회)	2020.5.6 ~ 7	

I. 한-칠레 상생협력 필요성과 미래비전

가. 칠레의 협력 잠재력과 주요국 협력현황

 (중남미 우량국가) 1인당 국민소득, 국가신용도, 국가경쟁력 중남미 상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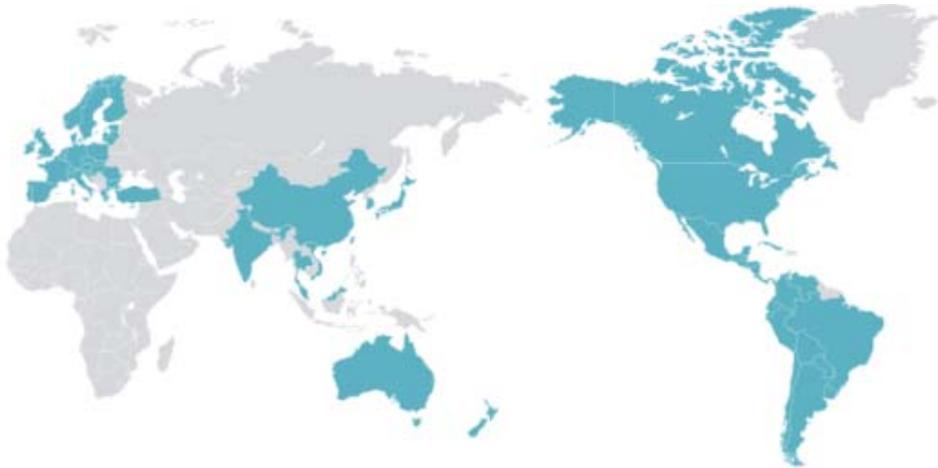
 (광물 및 신재생 자원 부국) 구리, 리튬 세계매장량 및 일조량 세계 1위

- 칠레는 구리, 리튬, 요오드, 은, 레늄, 몰리브덴 등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구리와 리튬은 세계 매장량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광업은 칠레 전체 수출의 45%로 칠레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높은 대외개방도) 세계 경제영토 1위 및 아시아국가 교역 비중 확대

- 칠레는 64개국과 28건의 경제협정을 체결하였으며(세계 GDP의 86.3%규모) 2018년 3월 11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서명함

칠레 경제협정 체결국 현황



자료 : DIRECON(subrei.gob.cl)

→ FTA 허브 및 중남미 진출 플랫폼으로 칠레 활용

나. 한-칠 상생협력 미래비전 도출

칠레, 산업구조 현대화를 위한 광물 다각화 및 국가 디지털화 추진 중

- 피네라 정부는 국제 구리가격 등락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타 광물(요오드, 리튬, 레늄, 몰리브덴 등) 개발 및 수출 다각화를 추진할 전망
- 아울러 본 보고서에서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국가 현대화를 위해 디지털 산업 및 4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추세

우리나라 대(對)칠레 수출 품목 다변화 필요

- 한국의 대(對)칠레 수출은 자동차, 화학제품 등 대기업 산업 소비재 시장에 집중되어 있어 우리 중소기업의 신규 수출기회를 발굴하기 어려움
- 칠레의 신성장 분야로의 수출품목 다변화를 통한 우리기업의 수출확대 도모 필요
 - (기존) 자동차, 자동차부품, 화학제품 등 산업 소비재 위주
→ 수출시장 포화상태
 - (향후)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의료, IT 등 신성장 분야로 확대 필요

II. 주체별 상생협력 과제와 실행방안

가. [G2G] 정부 간 협력을 통한 통상교류 확대

① 한-칠레 FTA 개정을 통한 교역 확대기반 마련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 비중 확대 등에 따라 한-칠레 FTA의 체감효과 감소

- 한국은 2003년 2월 15일 칠레와 전 세계 국가 중 처음으로 FTA를 체결, 2004년 4월 1일 발효
 - 2016년 타이어, 철강제품(평판압연, 합금강), 조명기구 등 13년 유예품목에 대한 관세까지 철폐되면서 현재 총 7,838개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음
 - 하지만 FTA 협상 당시 한국 측은 사과, 배, 고추, 마늘 등 일부 농산물을 개방하지 않았고, 칠레도 자국산업 보호 차원에서 냉장고, 세탁기 등을 비롯한 총 96개 품목을 FTA 무관세 제외 품목으로 지정
- FTA 체결 후 양국 간 교역량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칠레의 적극적인 통상확대 정책에 따른 다양한 국가와의 FTA 체결 및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 확대로 인해 한-칠레 FTA의 체감효과가 많이 감소
- FTA 개선협상을 통해 무관세 품목 확대와 더불어, 양국의 변화된 경제구조를 반영, 서비스, 투자, 원산지증명 등 세부규정 현대화 필요
 - 한-칠레 FTA의 효과 증폭

② 양국 간 협력 논의 산업 후속 조치 시행

한-칠레 협력 논의 산업에 대한 후속 조치 필요

- VIP 순방 후 경제외교 주요 논의 분야 후속 조치를 통한 정부차원의 유망산업 협력 육성 필요
- 특히나 아래 표의 산업에서의 양국 간 수요 공급 니즈가 일치하며, 추가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창출 필요

① 보건의료	② 신재생에너지	③ 사이버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4월 VIP 순방 시 한·칠레 보건의료 협력 MOU 체결('15.04) - 한·콜롬비아 보건의료 협력 MOU 체결('15.04) - 한·브라질 보건의료 협력 MOU 체결('15.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4월 VIP 순방 시 한·칠레 신재생 시장진출협력 MOU 체결('15.04) - 한·콜롬비아 에너지산업 협력을 위한 MOU 체결('15.04) - 한·페루 에너지효율 공동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MOU 체결('15.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4월 VIP 순방 시 한·칠레 전자정부 협력 MOU 체결(韓 행정자치부-칠레 국무조정부) - 18년 9월 양국 정상회담시 피네라 대통령 이 협력 희망 분야로 전자정부와 사이버보안을 언급 - 올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양국 외교부장은 사이버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

나. [B2B] 수요-공급이 일치 신성장 기업 간 협력

① 대형 전시회 참가를 통한 유망 해외기업 매칭

미국, 유럽 기업들이 산업을 점유하고 있는 칠레시장에서 기업인지도 확보 필요

- 보건, 신재생 등 칠레의 유망산업 시장은 기 진출한 미국과 유럽 기업의 점유율이 높으며 소비자 선호도 또한 편중되어 있음
- 대기업 및 유력 바이어들이 참가하는 산업별 전시회 참가를 통한 인지도 확보 및 바이어 발굴 필요

보건의료	신재생에너지	사이버보안
Expo Hospital	Expo ERNC	IOT Innovatech Latam
건설/인프라	광산업	식품
ConExpo	ExpoMin Exponor	Espacio Food & Service

② 칠레 인증 컨설팅 멘토-멘티제도 운영

인증이 까다로운 품목에 대해 기진출 국내기업바이어와 진출 희망기업 매칭

- 칠레는 일부 품목에 한해 필수인증을 득해야 하며, 인증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편이라 진출 초기, 기업의 부담이 큼
- 아래 표와 같은 특정품목의 경우 소관 기관의 허가 또는 인증절차 필요

품목	해당 기관
무기, 탄약, 폭발물, 질식성 화학제품 등	국방부 산하 병무청 (DGNM; Direccion General de Movilizacion Nacional) * 홈페이지: www.dgmn.cl 참고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무술 교습서 및 영상 교재	
알코올, 알코올 음료 및 식품	농림부 산하 농목축청 (SAG; Servicio Agrícola y Ganadero) * 홈페이지: www.sag.cl 참고
동식물 가공 식품 및 파생상품	
식물 및 식물에 유해한 물품	
동물 및 동식물 쓰레기	
비료 및 살충제	
식품	보건부 산하 공공보건청(Instituto de Salud Pública) * 홈페이지: www.ispch.cl 참고
의약품, 의료용 또는 미용 식품, 화장품, 마취제 및 유해물질 환각제	
방사능물질, 방사능 유발 도구 및 장비	칠레 원자력 위원회 (Comision Chilena de Energia Nuclear) * 홈페이지: www.cchen.cl 참고
수산물	농수산차관실(Subsecretaría de Pesca y Acuicultura) * 홈페이지: www.subpesca.cl 참고
수산물 자원(관상용 포함)	
무선통신장비(주파수 사용에 대한 사전취득 필요)	교통통신부 산하 통신차관청(SUBTEL) * 홈페이지: www.subtel.cl 참조
야생동물국제협약(CITES)에서 보호대상으로 규정한 동식물	야생동물국제협약(www.cite.org)와 소관부처
시멘트	주택도시계획부(Ministerio de Vivienda y Urbanismo)에 등록된 건설품질기술검사소에서 관련 품질 증명서(Certificado de Calidad)를 선발급 받아야 함

- 위 품목의 진출경험이 있는 우리기업 혹은 칠레 바이어와 중소기업의 멘티-멘토 제도를 운영, 인증 정보 공유 및 성과창출 유도

다. [B2G] 국내외 주요 기관 및 기업 매칭

① 정책, 인증절차, 입찰정보 등 중요 정보 체계화 및 배포

프로젝트 입찰정보 등 진출 기회에 대한 정보 사전 공유

-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국가 프로젝트 정보경로로 인해 시장조사에 초기투자 비용 과다 발생, 애로사항 다수 접수
 - 성과 창출이 어려운 단독 진출보다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한 프로젝트 정보입수 및 매칭지원, 진출 대기업의 수요와 중소 기술기업 파트너링
- 관할지 정부기관 및 진출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프로젝트 타임라인 사전파악 및 공유
 - 관심 기업 발굴 시 무역관의 1:1 밀착지원으로 성과 창출 제고
- 주재국별 주요 인증절차 및 관련 기관 컨택 포인트 확보 및 배포 필요

현지 산업별 인증절차 정보 체계화 및 배포

- 각국 정책 최신동향 및 인증절차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완 및 취합하여 고객이 사전에 시장에 대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KTR(브라질 진출)과 같은 인증기관과 협력하여 인증취득 지원
- 시장에 대한 개별기업 문의 접수 시 조사지원

② 정부-대기업-중소기업 간 대중소 동반 사업 정례화

진출기업(대기업)-국내기업-현지기관 간 공통 수요 존재

- 주체별 니즈 파악 후 우호적 협력 관계 조성 가능
- 관할지 정부기관이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며, 사전 정보조사 지원 등을 통해 진출기업(대기업)-국내기업을 연결함과 동시에 현지 주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의 장을 만드는 대중소 동반 협업 사업 추진 필요
- 대중소 컨소시엄 구성뿐만 아니라 현지 주요 인증과정 (SEC 전기전자 인증, 환경영향평가, ISP 인증 등)도 우리기업에게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어 현지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은 중남미 신재생에너지 시장진출에 필수

칠레 국내의 주요 기관·기업 간 니즈(Needs) 매칭

진출기업(대기업)	중소기업	현지 유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진출경험과 현지시장 인지도 多 ○ 기술력있는 부품 납품 등에 대한 수요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솔루션, 스마트의료, 스마트 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기술 등 우수한 기술력 보유 ○ 현지시장 인지도 및 네트워킹 부족으로 인한 시장 진입장벽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수요 및 프로젝트 다수 보유 ○ 품질 및 단가의 두 마리 토끼에 대한 수요보유
<p>[대중소동반 협업사업 성공사례 : 중남미 FTA 발효 3국 신재생에너지 쇼케이스]</p> <p>중남미지역본부 특화사업으로 산티아고무역관은 2018년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중남미 FTA 발효3국 신재생에너지 쇼케이스를 개최했고, 해당 행사에는 중남미 진출 우리기업 10개사가 참여하였으며, 현지 발주처 50개사가 참가하여 활발한 네트워킹을 진행</p> <p>★ 주요 사업성과 : 중소기업 H사 첫 수출 및 대중소 동반성장 달성</p>		
<p>신재생 대중소동반 협업사업 정례화를 통한 중소기업 마케팅</p>		

라. [국민] 글로벌 일자리 지원 및 창출

① 워킹홀리데이 및 현지 유관기관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 칠레 내 워킹홀리데이 참가생(워홀러) 대상 주재상사 및 현지업체 인턴 기회 제공

- 칠레 내 정규직 취업을 위해서는 스페인어 능력과 노동비자가 필수적인 관계로 이러한 요건에 부합되는 워홀러를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지원 시행

🌍 워홀러 및 기채용인력 대상 칠레 노동청 연계 노동법 및 비즈니스 실무 강의 기회 제공

- 칠레 취직 후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현지 노무 전문가를 통한 노동법 숙지 필수

Ⅲ. 향후 對칠레 K패키지 실행체계(안)

KOTRA-공관-칠레 정부 상시협업체계 구축

- 양국 정부 및 기업의 구체적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상시협력체계를 구축, 관련 전문인력 및 예산을 편성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기업의 점진적 진출지원

KOTRA	공관	칠레 정부 및 유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 산업별 중남미 진출희망 우리기업 파악 및 모집 ○ 현지정책 및 인증 정보 최신동향 정기배포 ○ 해외수요 대응 국내 업체 발굴지원 ○ 민간협력체제 및 협업기반 사업 (사절단, 전시회 연계 사절단 정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G2G 협력 수요 파악 및 공유 ○ 현지 정책동향 및 정부 구매계획 파악 ○ 주요 정부인사와의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네트워크 공유 ○ 국가 프로젝트 및 입찰정보 수시 공유 ○ 우리기업의 중남미 진출과정 지원 ○ Latin Week, LAC 등 방한행사 참여를 통한 최신 수요동향 공유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김보영	과장	산티아고무역관	56 2 3221 0710	by.kim@kotra.or.kr

KOTRA자료 20-102

2020 국별 진출전략 **칠레**

발행인 권평오
 발행처 KOTRA
 발행일 2020년 1월
 주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화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의처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9)
 I S B N 979-11-6490-248-4(95320)

Copyright © 202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